

Title: the book of Titus – Sermon 4: Sermon Notes

Scripture: Titus 2:1-5

Date preached: January 30th 2022

Scripture: Titus 2:1-5

1 But as for you, speak the things which are proper for sound doctrine: 2 that the older men be sober, reverent, temperate, sound in faith, in love, in patience; 3 the older women likewise, that they be reverent in behavior, not slanderers, not given to much wine, teachers of good things— 4 that they admonish the young women to love their husbands, to love their children, 5 to be discreet, chaste, homemakers, good, obedient to their own husbands, that the word of God may not be blasphemed.

1 그러나 그대는 바른 교훈과 일치하는 것을 가르치시오. 2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 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오. 3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며 남을 헐뜯거나 술을 좋아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시오. 4 그러면 그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5 절제하며 순결하고 부지런히 집안 일을 하며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교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Review

Last time we examined what Paul wrote to Titus regarding the false and dangerous teachers in the church. Paul didn't pull any punches. He had to be blunt and direct. The church in Crete was relatively young but already there were wolves amongst the flock. Titus needed to act quickly and decisively to protect the church. This was why Paul gave him the task of finding good and Godly men who could lead. He was also tasked with stopping, literally "silencing" those who were deceiving the people and causing division. Titus is to root them out and cleanse the church. It would not be an easy task. The Cretans had a reputation for being difficult people. They were known to be liars, greedy and lazy.

Let us then review what Paul said about these false teachers. He began by describing the character of these men. They were **insubordinate**, meaning that they would not submit to those in authority over them. When our pride puffs us up we begin to believe we are something we are not. An elder is a servant under Christ. The church is never their church, and they are never master of it.

They were also **idle talkers**, meaning that their words were empty or lacking in good nourishment. Their words were not God's powerful Words of truth and life but the thoughts and ideas of men. They were **deceivers**, meaning they sought to willingly lead people away from the truth. They were also drawn to myths or fables.

As we said last time they wanted to impose a form of Jewish legalism on the church. They sought to make God's gift of salvation dependent upon following certain rules or regulations.

Paul went on to talk about their drive and motivation. Their motivation for wanting to lead the church was the desire for money or financial gain. To this end they would preach and teach things that tickled the ears and won people's approval. They certainly didn't want to offend people or confront them with the truth.

We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today. People are rarely drawn to sermons about their sinful nature and how wicked they are. Rather, they prefer sermons about how God will bless them and

give them what their hearts desire. Paul goes on to tell us that the work of these men causes division and chaos. Families will be divided and the effective witness of the church will be damaged. Such men are abominable, disobedient and disqualified from being an elder.

Today we begin chapter two. It presents to us a wonderful outline for how elders are to encourage and instruct their flock. As Adam Clarke writes about chapter two,

“Few portions of the New Testament excel this chapter. It may well form the creed, system of ethics, and text book of every Christian preacher.”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의 거짓되고 위험한 교사들에 관해 쓴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폴은 편지를 날리지 않았다. 그는 직설적이고 직설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비교적 젊었지만 이미 양 떼 사이에 이리가 있었습니다. 티투스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인도할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찾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을 속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 그대로 "침묵"하는 것을 막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그것들을 뿌리 뽑고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Cretans 는 어려운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 탐욕스럽고 게으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한 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릴 부풀릴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아닌 어떤 존재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장로는 그리스도 아래 있는 종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들의 교회가 아니며 그들은 결코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게으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말이 공허하거나 영양이 부족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만자였습니다. 즉 그들은 기꺼이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신화나 우화에 끌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그들은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의 한 형태를 부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규칙이나 규정을 따르는 것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Paul 은 계속해서 그들의 추진력과 동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끌고자 하는 동기는 돈이나 금전적 이득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귀를 간지럽히고 사람들의 승인을 얻은 것을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진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된 본성과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에 대한 설교에 거의 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시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일이 분열과 혼란을 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의 효과적인 증거가 손상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증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장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 장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장로들이 어떻게 그들의 양 떼를 격려하고 가르치는지에 대한 훌륭한 개요를 제시합니다.

Adam Clark 이 2 장에 대해 쓴 것처럼, “신약에서 이 장을 능가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기독교 설교자의 신조, 윤리 체계, 교과서를 형성할 것입니다.”

1 But as for you, speak the things which are proper for sound doctrine:

Paul as we have seen over the past couple of weeks has outlined the nature, character and danger of

false teachers. They not only taught a false gospel but they also lived unholy lives. Titus however is not like them. He not only teaches what is right but also lives in a way that is consistent with what he teaches. So chapter two begins with Paul contrasting the approach of the good elder with that of the bad. He will go on to explain what a good pastor is to do and teach.

The first thing a pastor is to do is speak or teach things that bring about the right way of living. What lies behind Paul's words here is the idea that as Christians we are to live in the right way, and not just think the right way. The bible is not a book full of abstract ideas. What we read in the bible must be put into practice. We should not for example just read about the command to, "love one another" and think to ourselves that it is a nice sentiment. No, we put the command into practice by loving one another. So Paul encourages us to live consistently with what we claim to believe. To say we believe what the bible says, but to then ignore it is foolish hypocrisy.

Paul will now go on to outline what Titus is to teach to the different groups that make up the church. As I'm sure we would acknowledge there are universal codes of behaviour applicable to all believers of every age and gender. All of us are to try to live lives of holiness and obedience to God. However we also must recognise that different groups within the church have particular concerns, needs or issues that have to be addressed. So Paul now gives some targetted instruction for how Titus is to deal with the various groups inside the church. He begins with his instruction for older men.

지난 몇 주 동안 본 바와 같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성격, 성격, 위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복음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Titus 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옳은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2 장은 바울이 선한 장로의 접근과 악한 장로의 접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훌륭한 목사가 무엇을 하고 가르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른 생활 방식을 가져오는 말을 하거나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며 올바른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읽은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읽고 그것이 좋은 감정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관되게 살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위선입니다. 바울은 이제 디도가 교회를 구성하는 다른 그룹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모든 연령과 성별의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행동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교회 내의 다른 그룹들이 다루어야 할 특별한 관심사, 필요 또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도가 교회 안의 다양한 그룹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목표가 있는 지시를 제공합니다. 그는 나이든 사람들을 위한 지시로 시작합니다.

2 that the older men be sober, reverent, temperate, sound in faith, in love, in patience;

Paul directs his words here to the older, or as the King James translates it the "aged men" in the congregation. The first thing he tells them regards the need to be **sober**. Older men who have maybe retired from working or reduced their hours of work may have time on their hands. There is then perhaps the temptation to turn to drinking to pass the time. Also much socialising in the ancient

world, as it does today revolved around drinking. Titus is to remind them that as older men they are to set a good example. They should not be seen to be controlled by, or addicted to alcohol. They need to remain clear-headed so that they can think clearly and dispense good advice to others. This is not to say that they should never drink, but that it should be done in moderation and self control. They are also to be **reverent**. This is translated as “grave” in the King James bible. Grave suggests someone rather solemn or serious who never laughs so I prefer reverent. What Paul means here is someone who is dignified and honourable. A person that others can look up to, admire and respect. We ought to be able to respect senior citizens in society. This is difficult to do if they are drunkards or act in foolish or undignified ways.

One of the ways they can help others properly respect them is by being **temperate**. Being temperate in life means showing care over our behaviour and being moderate or measured. It implies that a person is not extreme in what they think, say or do. It also suggests that they can apply self-control. Being temperate is the opposite of being frivolous or careless.

Finally Paul tells us the older men are to be “sound” in three areas. They are to be sound or healthy in **faith, love and patience**. In English we can use the word “sound” as an adjective. We use it in this sense when we test something to determine its quality. If the thing meets the standards of our test we can describe it as being sound. I remember once going with my stepfather to buy a second hand car. He was an engineer so after he had listened to the engine running for some time he declared it to be sound. He simply meant that it was free from flaw or defect. A similar thing here applies to the older men in the church. When one examines their lives they should be sound, healthy and free from flaw or defect in faith, love and patience. They should be faithful to God. They must faithfully follow God's Word and have it as their standard in life. They should be loving to all. They must use their experience and wisdom to properly love those around them. This may at times mean lovingly rebuking those in error. I once read a story about a woman saying she loved her daughter too much to punish her for doing something wrong. On the contrary, to not punish her was unloving. The truly loving thing is to disciple naughty children. This is because discipline is a means of imparting knowledge and wisdom. How can children grow and develop good character if bad habits are not called out and remedied?

Finally they are to be patient or enduring to the end. To sum up, older men should live lives that ensures they can be respected in every way. In verse 3 Paul turns his attention to older women.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말을 연로한 사람에게 지시합니다. 즉, 킹 제임스가 번역한 대로 회중의 “연로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한 것은 금주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근무 시간을 줄인 노인들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술을 마시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세계에서 사교 활동은 오늘날 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티투스는 그들에게 연로한 사람으로서 좋은 본을 보여야 함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알코올에 의해 조절되거나 중독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도록 명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경건해야 합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무덤"으로 번역됩니다. 무덤은 결코 웃지 않는 다소 엄숙하거나 진지한 사람을 제안하므로 경건한 것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존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사회에서 노인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어리석거나 품위가 없는 행동을 하면 이것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적절하게 존중하도록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절

제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절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절제하거나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 말, 행동에 있어 극단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절제하는 것은 경박하거나 부주의한 것과 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연로자들이 세 가지 영역에서 “건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 사랑과 인내가 건전하거나 건강해야 합니다. 영어에서는 "sound"라는 단어를 형용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 무언가를 테스트할 때 이러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물이 우리 테스트의 표준을 충족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건전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친아버지와 함께 중고차를 사러 갔던 기억이 난다. 그는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얼마 동안 엔진이 작동하는 소리를 들은 후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결함이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교회의 연로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의 삶을 살필 때 그들은 건전하고 건강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올바르게 사랑하려면 경험과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과오를 범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꾸짖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자신의 딸을 너무 사랑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 벌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일이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것은 버릇없는 아이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징계는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바로잡아 고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성품을 키우고 계발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인내하거나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노인들은 모든 면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절에서 바울은 연로한 여자들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3 the older women likewise, that they be reverent in behavior, not slanderers, not given to much wine, teachers of good things—

Just as with older men the older women in the church require individual attention. Although many of the things Paul said about older men equally apply to women they have their own particular set of concerns. Firstly Paul tells us that they are to be **reverent in behavior**. This refers to the way women are to carry or comport themselves. Women can choose to dress in immodest ways. They can wear clothes that accentuate their bodies and that are attention grabbing or demeaning. Paul is calling them to a higher standard. They are to behave in a way that is holy and honoring to God. The words Paul uses carry the idea of being like a priestess. A priest or priestess in the ancient world tried to live as pure a life as possible.

They did not want the grime and filth of the world to make them unclean. This I think is what Paul is getting at here. In practical terms this is reflected in the clothes or accessories women wear, the way they speak and the way they interact with others.

Of particular concern for women is that they are not **slanderers**. Some women (men too!) do enjoy picking up bits of gossip and passing it on to their friends. I used to work with a woman who whenever we bumped into each other at work would ask me for the latest “juicy gossip.” Being a man I never had any juicy gossip to share but it never stopped her enquiring.

Next Paul tells us that they are **not to be given to much wine**. In the ancient world heavy drinking amongst both men and women was often admired and encouraged. It was common for women to drink to excess in both Greek and Roman cultures. Women spent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t home and would often drink to pass the time, or deaden the boredom. Paul reminds older women

that just like with men they are not to be drinking to excess. If they choose to drink they should do so in moderation and always remain in control. Finally Paul tells us that they are to be **teachers of good things**.

Sadly in the world today, particularly in the west we tend to look down upon older people. We think of them as being past their prime and having little of value to offer. I find it deeply offensive when people talk to older people in a condescending or infantilising way. We must always respect and honour our seniors. It also saddens me that many younger people do not have the time or patience to listen to the wisdom and teaching of the older generation. The truth is that older people have a wealth of life knowledge to impart. We can learn from what they have to say, but also from their life experiences. My grandmother for example lived through the second world war in the UK. It was a time of great hardship for people, a time in which daily commodities were controlled or rationed. Even though in her later life she lived in a world of plenty she retained her attitude of being cautious and careful. She did not waste what she had and always appreciated the value of the things she possessed. What good life lessons I learned from her.

This is what Paul is getting at here. He is not talking about older women providing “formal” teaching. But rather life lessons, guidance or help especially to the younger women. Paul turns next in verses 4 and 5 to younger women.

연로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연로한 여성도 개별적인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바울이 연로한 남성들에 관해 말한 많은 것들이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그들만의 특정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행실이 경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스스로를 젊어지고 다니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여성은 단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몸을 강조하고 주의를 끌거나 비하하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더 높은 표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 제사장과 같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사제나 여사제는 가능한 한 순수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오물과 더러움이 그들을 더럽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Paul 이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여성이 입는 옷이나 액세서리, 말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반영됩니다. 여성들이 특히 걱정하는 것은 그들이 중상 모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여성(남성도!)은 가십을 골라서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즐깁니다. 나는 직장에서 서로 마주칠 때마다 나에게 최신 "맛있는 가십"을 묻는 여성과 함께 일하곤 했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공유할 수 있는 맛있는 가십이 없었지만 그녀의 탐구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포도주를 많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과음은 종종 존경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는 여성이 과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집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고 종종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지루함을 달래곤 했습니다. 바울은 연로한 여성들에게 남성과 마찬가지로 과음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킵니다. 술을 마시기로 했다면 적당히 마셔야 하고 항상 통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이 좋은 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세계에서, 특히 서양에서 우리는 나이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성기를 지나 제공할 가치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들에게 오만하거나 유치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매우 불쾌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항상 선배들을 존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지혜와 가르침을 들을 시간과 인내심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진실은 나이든 사람들이 나누어 줄 삶의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경험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는 영국에서 2차 세계 대전을 겪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통제되거나 배급되는 시대, 사람들에게 큰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녀는 말년에 풍요로운 세상을 살았지만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낭비하지 않았고 항상 자신이 소유한 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배운 좋은 삶의 교훈.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공식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는 나이든 여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삶의 교훈, 인도 또는 특히 젊은 여성에게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4 절과 5 절에서 다음으로 젊은 여자들에게로 넘어갑니다.

4 that they admonish the young women to love their husbands, to love their children, 5 to be discreet, chaste, homemakers, good, obedient to their own husbands, that the word of God may not be blasphemed.

Paul's instruction to Titus is that he train and equip the older women who will then instruct the younger women. This makes logical sense. Titus was a young, probably unmarried man so there was clearly a limit to his knowledge or expertise in this area. Far better to have the older women impart their superior knowledge. When Paul says younger women here he is primarily referring to young married women. In ancient Greek culture women often married when they were between the ages of 12-15. Naturally they would have no experience of living outside of the home or of running a household. The expectation here then is that the older women; grandmothers, mothers and aunts are to pass on their wisdom and experience and the younger women will listen and learn. What are they to teach the younger women? Firstly that they are to **love their husbands**. Its interesting, but not accidental that love features in the first two admonitions. When a home is built upon sacrificial love it has a much better chance of being strong and steady.

When a husband and wife truly love one another they create an atmosphere of nurture and caring that benefits the whole household. This is what Albert Barnes writes on this subject;

All happiness in the marriage relation is based on mutual love. When that departs, happiness departs.

Also we need to remember that in the culture of Paul's day marriages were typically arranged. Women had little say in who they married. They did not marry because of love but instead had to develop love and affection after marriage. Therefore Paul calls upon these young women to do all they can to love their husbands and make good strong unions with them.

They are also exhorted to **love their children**. I'm sure that all the mothers listening to this have great natural love for their children no matter their age. Some women however are deficient in this love, or are prone to be selfish and self-centered. We should remember that the model for perfect love was demonstrated by the Lord Jesus Christ. We are to strive to emulate His sacrificial love that put the interests of others above His own. Young women are also to be taught to be **discreet**. To be discreet means to be self controlled and temperate. It implies having the ability to control your passions or desires. They are also to be **chaste**. This means that young women are to be pure and honest in both thought and act. They are to consider how they dress and how they act around others.

The next thing we are told is that they are to be **homemakers**. Again we run into an issue that some find controversial today. Much of the modern western world regards being a stay at home mom or homemaker as unrewarding boring drudgery. The world tells women that to do such work is in effect to be a "slave." In order to be fulfilled and satisfied in life women need to get a job and compete against men. I think such views cheapen and demean the role and importance of wives and mothers. There is no more important job for a woman to undertake than to raise and care for

children. All societies are built upon the family. When we erode or attack the family we weaken and damage society. This does not mean that women cannot, or should not take jobs but that their primary responsibility should be to the family and home. Their desire should be to be good carers, or keepers of the home.

The next issue is again controversial for some. It is that young women be **obedient to their own husbands**. In the modern world many women are uncomfortable with the idea of submitting to their husbands. They wrongly think this means that in doing so they are accepting that women are inferior to men. That is accepting male leadership they are in effect saying they have nothing valuable to offer or contribute. This is not what the bible teaches. The truth is that in God's order of things men are placed in a position of authority over the household. God has determined that this is the way families are to operate. There are good reasons for this and as Christians we must just accept that God knows best.

It is the wife's role to willingly and lovingly submit to the husband's leadership. It is the husband's role to respect and love his wife. When these things come together we actually see a beautiful balance. The wife is never a slave to the husband and the husband is never a tyrant in the home. Both husband and wife have equal and valuable complementary roles to fulfill.

The verse ends with Paul telling us why young women are to follow his teachings. It is so that people looking at this family see something good and worthy of admiration. They notice that there is something different and special about this family. They do not bicker, argue and fight. They truly love and care for one another. In other words God is glorified through this family.

When Christian families act in unloving or act in uncaring ways it gives the world an opportunity to blaspheme God and call Christians hypocrites. Next time we will see what Paul has to say about young men and servants.

바울이 디도에게 지시한 것은 그가 연로한 여자들을 훈련시키고 장비를 갖추게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Titus는 젊고 아마도 미혼이었을 것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그의 지식이나 전문 지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자신의 뛰어난 지식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젊은 여성들을 말할 때 그는 주로 젊은 기혼 여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여성은 종종 12-15 세 사이에 결혼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집 밖에서 살거나 집안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나이 든 여성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고모는 지혜와 경험을 전수해야 하며 젊은 여성은 듣고 배울 것입니다. 그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첫째는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두 훈계에 사랑이 등장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가정이 희생적인 사랑 위에 세워질 때 강하고 안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들은 온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양육과 보살핌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것이 Albert Barnes가 이 주제에 대해 쓴 것입니다. 결혼 관계의 모든 행복은 상호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것이 떠나면 행복이 떠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 시대의 문화에서 결혼이 일반적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누구와 결혼했는지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사랑과 애정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청녀들에게 남편을 사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녀를 사랑하도록 권고받습니 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어머니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자연스런 사랑이 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은 이 사랑이 부족하거나 이

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의 모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입증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청녀들에게도 슬기로운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열정이나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또한 순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녀가 생각과 행동 모두에서 순수하고 정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옷을 입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 주위에서 행동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듣는 것은 그들이 주부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오늘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현대 서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집에 있는 어머니 주부를 보람 없는 지루한 고역으로 간주합니다. 세상은 여성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상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성이 삶에서 성취감과 만족을 얻으려면 직장을 구하고 남성과 경쟁해야 합니다. 나는 그러한 견해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과 중요성을 낮추고 폄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것보다 여성이 풀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회는 가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가족을 침식하거나 공격할 때 우리는 사회를 약화시키고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없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일차적 책임이 가족과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훌륭한 간병인, 즉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는 일부 사람들에게 다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들이 제공하거나 기여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남성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사람들이 가정을 다스리는 권위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족이 운영되는 방식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편의 리더십에 기꺼이 그리고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합될 때 우리는 실제로 아름다운 균형을 봅니다. 아내는 결코 남편의 노예가 아니며 남편은 가정에서 결코 폭군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동등하고 가치 있는 보완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청녀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가족을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감탄할 만하다. 그들은 이 가족에게 뭔가 다르고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다투지 않고 논쟁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이 무정한 행동을 하거나 무관심한 행동을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인을 위선자로 부를 기회를 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study.

오늘의 연구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 Living up to God's standards

In whatever group you find yourself I think today's passage gives us all much to think about. If you are an older man or woman or a younger woman God's standards are equally high. Older men are called to set a good example to others. To be mature, wise, sober-minded loving and patient. Older women are to also set a good example especially to younger women in the church. They have the very important responsibility of instructing and helping younger women. Younger women are called to live lives of purity and modesty. For all of us to live the lives God requires of us is challenging.

There are so many temptations and negative influences around us. We cannot possibly succeed without God's help. But we need not worry. We know that He is always close at hand. Let us go to Him constantly in prayer asking for His guiding hand. So that we can lead, love and guide those precious people He has given us.

어떤 그룹에 속해 있든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연로한 남자든 여자든 젊은 여자든 하나님의 표준은 똑같이 높습니다. 연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숙하고 현명하며 근신하며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 나이든 여자들은 특히 교회에서 젊은 여자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은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고 돕는 매우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순결과 정숙한 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전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유혹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항상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인도하는 손길을 간구하는 기도로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랑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2 Showing the world a good example

Today's section of scripture ended with Paul explaining why the church should demand high standards from its members. The reason is that as Christians we are Christ's representatives on earth. Whether you are comfortable with it or not if people know you are a Christian they are watching you. They are judging how you live, talk, respond to situations, deal with difficulties and interact with others. Many are simply waiting for an opportunity to point and say; "There you are! these people are hypocrites! They are acting just like the world they criticise and condemn."

Naturally none of us are perfect, and we all do and say things at time that bring shame upon us and the church. But what Paul is calling us to is to strive to live better more admirable lives. So that when those outside the church look at us they see that we are different and special. And that through our example God is glorified.

오늘의 성경구절은 바울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살고, 말하고, 상황에 반응하고, 어려움에 대처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지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지적하고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세상처럼 행동합니다." 당연히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우리와 교회에 수치를 주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다르고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